



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

두란노해외선교회 소식지

SUMMER, 2018
VOL. 18

SPECIAL ISSUE

전략적 팀(ST):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故 하용조 목사의 선교정신에 의해 설립된 초교파 복음주의 선교단체입니다.

TIM은 교회개척과 전방개척선교를 핵심사역으로 삼고, 지난 25년 동안 진력해왔습니다.

현재 TIM은 54개국, 422명의 선교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TIM은 “한국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하기를 원하는 국내외 교회와 동역할 것입니다.



SPECIAL ISSUE

건강한 ST사역을 위한 제언 2
강일영 총무



본부에서



캠퍼스 사역

〈캠퍼스사역자 전략회의〉
우리가 걷는 아름다운 길 6
류영민 선교사

〈청년선교동원〉
청년을 통해 복음의 전파를 꿈꾸다! 9
손충성 선교사

〈캠퍼스 사역〉
예수님을 만나다 12
박한결 선교사

〈청년 단기선교사 이야기〉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6
유니게, 리엘 선교사

〈TIM 1호 선교사〉
인생 3막,
캐나다 선교사의 발자취를 찾아 31
유진현 간사

〈현장스케치-TIM 재능기부 OT〉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33
최용성 간사

〈TIM 재능기부 간증〉
능력, 주께 있네 35
오명집사

〈TIM 재능기부 소감〉
순종함으로 주님의 통로가 되는 우리 38
박미선 자매

〈현장스케치-MK중보기도모임〉
MK를 위해 기도합니다 40
유진현 간사

〈MK 이야기〉
무섭고 떨렸던 스리랑카에의 학교생활 43
MK 유지혜

〈MK 이야기〉
“포스트!!” 한국에서 날아온 생일카드 44
홍아리엘 선교사

본부소식 45
후원교회(기관) 47



열방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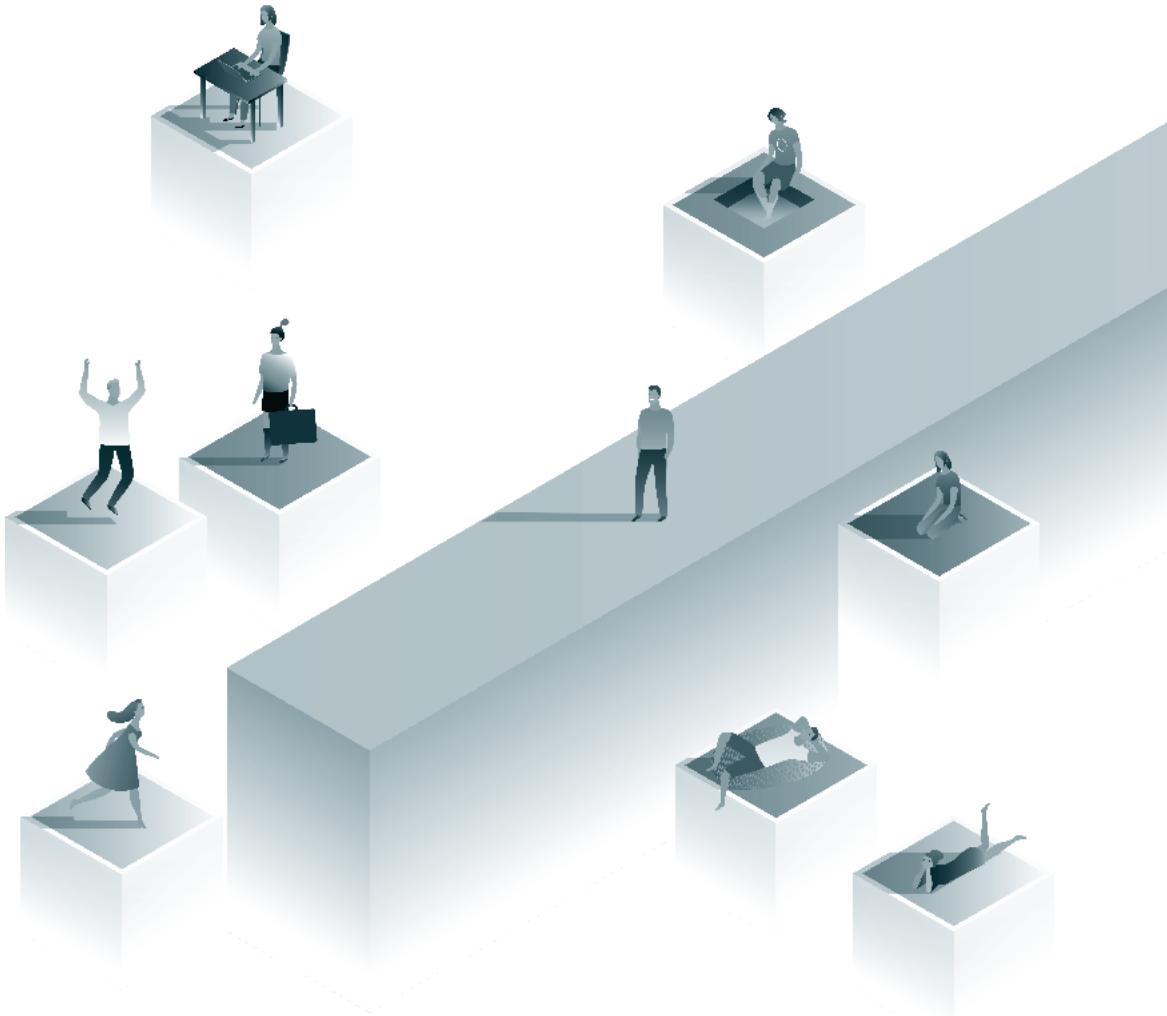
〈선교사 정착기〉
믿음으로 성장하는 청년 공동체 21
임요셉 선교사

〈선교사 정착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사용법 26
보아스 & 나오미 선교사

Tim 두란노해외선교회

건강한 ST(Strategy Team: 전략적 팀) 사역을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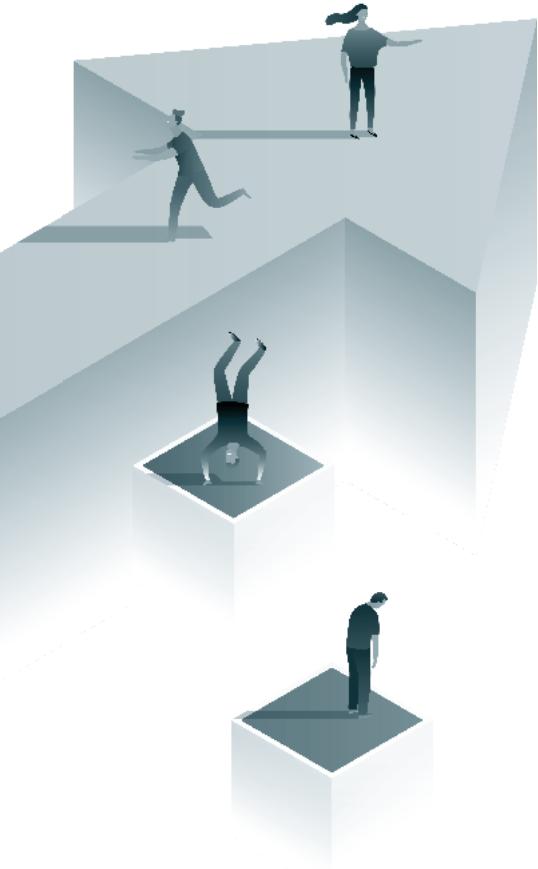
강일영 총무
TIM



4

2015년 10월 두란노해외선교회에서는 오랜 고민과 논의 끝에 각 현장에 맞는 전략적 팀(이하 ST)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그 후 많은 논의와 현장의 우여곡절을 지속하며, 이제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ST가 단순한 선언과 선포로 끝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짐작부터 현장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결정이라는 비판까지 수많은 의견들이 여러 방향에서 들려왔다.

그러나, 이제는 ST구성과 방향이 불변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많은 고민들을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곤 한다. 그러면서도 함께 팀구성을 하라는 것이 분명 쉽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개인기에 탁월한 민족이라 한국인의 추진력과 투지로 달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자원이고 저력이라고 까지 말한다. 그래서, 협력보다는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농담반 진담반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금까지는 속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목적에 초점을 두려 한다. 목적에 맞는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과정은 치열한 논의와 고민, 기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ST를 구성하는데 몇 가지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된다. 물론, 지역과 사역이 다름으로써 오는 장애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은 역시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다. 팀사역을 잘 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팀 사역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요소가 바로 인간 관계이다.

인간관계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장애가 되는 몇가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역을 나누고 사역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배우려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 결과로 팀사역을 위한 최선의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이, 문화적 배경, 경험 등 개인차의 요소가 다양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나눔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 고백 가운데 삶을 살고 있지만, 성경해석의 차이나 신학적인 경험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신앙적 경험과 신학적 배경 그리고 세대의 차이 등에서 유발되는 관점의 차이는 깊은 성서 연구를 함께 하는 등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사회 현상이나 삶의 해석에 차이가 생기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신의 관점을 절대화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은 잘못된 흑백의 논리에 빠지게 된다.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선교를 하고 팀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에 열려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서둘러서는 안된다. 그리고 선임되고, 앞선 사람이 먼저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가능하기도 하다. 그래서 TIM은 2015년 시작한 ST의 방향성과 움직임에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움직여 가고 있다. 지금까지 ST 사역을 만드는 방향과 공유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면, 이제는 하나하나 진행하고 만들어가는 시점이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ST를 구성해 나가야 할까? 약 5가지로 건강한 ST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기로 하자.



첫째는 서로를 인정하는 훈련이다. 선후배 관계, 상호 다른 은사,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로 가 구분해 보자. ST 사역을 이야기해 보면 모든 것이 섞여서 뒤죽박죽(?)이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다. 그것은 건강한 팀사역이라 할 수 없다. 팀 사역은 서로가 무엇을 잘 하는지 서로 가 무엇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로 세워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로 주장하려고 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선임선교사는 후임선교사의 은사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사역을 공유하며, 후임선교사는 선임선교사의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인정이 팀 사역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바울을 비롯 많은 성경 인물들이 이 영적 문제를 귀하게 다루었고 수시로 격려하고 권고했음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할 때에만 온전히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팀 사역의 필수적인 것이 같이 기도하는 일이고, 영성 증진을 위해서 같이 모여 예배하는 일이다.

온전한 예배가 없이 은사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보면 선교사가 아니라 사역자가 될 것이다. 사역자는 언제든지 사역이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다. 손해가 나면 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선교사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악한 영들은 현장에서 마음을 분열케하고 격동케해서, 서로를 이간질하고 예배를 깨뜨려서 결국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방해한다. 따라서 ST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는
신부를 얻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신부를 얻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 밖에 없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요 3:29~30)

선교사는 신부를 얻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신부를 얻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 밖에 없다. 세례요한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으로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던 고백이 TIM 선교사들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하는 ST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것이고,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이 음성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는 복된 고백을 할 수 있는 신랑의 친구들이 될 것이다.

주님의 천국 잔치에 신랑의 들러리로 그 음성을 듣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모든 TIM 선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 번째는 자기의 것(소유)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사역이 마치 나의 것처럼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물론, 직접적으로 나의 사역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없다.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선교사들과 공유하지 않고 자신의 담을 쌓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타 선교사들은 마치 조력자 내지는 손님의 위치에서 일하게 되므로 보람있는 사역을 만들어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 쏟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누가 그 사역을 만들었든, 진심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서로 협력하고 존경하며 무익한 종으로 섬길 수 있다.

네 번째는 서로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자랑보다는 다른 사람의 자랑을 많이 해 줄 때 듣는 사람은 오히려 타 선교사를 칭찬해 주는 선교사에게 점수를 더 주는 경우가 많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팀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팀 사역 중 중요한 사항은 서로의 업무와 공간을 잘 분담하는 것이다. 업무가 같으면 서로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되도록 선교사들은 자기 재능에 맞는 역할을 맡아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성취감이 없을 때는 선교사들은 혀탈하게 되고 조력자로서 계속 남고 싶어하지 않는다. 또한 적당한 자신만의 공간이나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하나님과 일대일의 영성이 살아 있고, 공유될 수 있을 때, 건강한 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7





캠퍼스 사역



8

캠퍼스사역자 전략회의 우리가 걷는 아름다운 길

류영민 선교사
전략 1팀 팀장

차마고도,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교환하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걸었던 길. 그 험난한 길이 멀지 않은 N시에서 지난 4월 캠퍼스 사역자와 본부 스텝 등 약 30 여명이 모여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종교사무조례수정안 실시 이후 변화 되어가는 현지 종교 상황에서 이루어 져 그 의미가 깊었다. 종교사무조례수정안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실행된 것으로 정부가 종교에 관한 엄격한 통제력을 발휘하여 보다 확실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종교법으로 인해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의 종교장소, 종교활동, 종교교육, 인터넷 활용, 해외와의 교류 등 ‘종교행위 공간’은 이제 완전한 통제의 길로 걷게 된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대처해야 할까? 기존의 사역들을 어떻게 정비해 나가며, 어떤 방향으로 사역적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인가? 여러 난제들은 전략회의 참석자들의 주된 논의 주제였고, 그 중 최대 화두는 캠퍼스 사역 네트워크 구축이었다. 정부의 종교법 개정으로 선교사들에 대한 탄압이 강화된 상황에서 지방마다 이뤄지고 있는 캠퍼스 사역을 어떻게 네트워크하여 사역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캠퍼스 사역



1. 캠퍼스 사역의 네트워크를 구축

9

당국의 감시를 피해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끼리의 원활한 소통망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인이 양육한 제자들이 지방도시의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있는지 정리해야 한다. 각 선교사들이 보유한 이러한 자료들을 취합하면 전체적인 사역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 과정에 보안은 필수적이다.

2. 제자들의 전도, 양육, 영적 수준 체크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의 소재를 파악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학생은 어떠한지, 제자로서의 가능성과 학생들의 영적 수준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단계별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공유된 기본적인 양육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큐티, 일대일은 기본과정으로 하고, 선교사 개인이 사용하는 양육 교재를 추가로 정하는 등의 방법이다.

3. 양육 방법 통일과 학생 정보 공유

학생들의 정보를 다른 사역자와 공유할 때, 무엇보다 소개받는 선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소개받은 학생을 정기적으로 만나야 할 뿐 아니라 그 만남에 갖은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간혹 소개해 준 선교사의 스타일이 학생과 맞지 않아서 학생이 만나러 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의 현지인 제자를 찾아 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4. 청년 선교사 동원과 양성

대부분의 캠퍼스 사역 선교사들의 연차가 오래되어 신분의 노출에 자유롭지 못하고, 학생들과 교제하기에는 나이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학생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FA 선교사, 단기선교사와 같은 젊은 선교사들이 캠퍼스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선교사들이 후배양성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함께 걸어가고
협력하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있기에
전략회의 내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다.

여러 의견과 논의를 거쳐 우리는 현장의 상황과 본부의 전략에 맞춰 더욱 전략팀(ST)으로서 우리를 하나되게 견고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한 마음이 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몇몇 가정은 익숙한 지역을 떠나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사역을 위해 지역을 옮기는 것 또한 큰 위험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함께 걸어가고 협력하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있기에 전략회의 내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다. 짧은 전략회의 기간 중 우리는 시간을 내어 차마고도의 길을 함께 걸었다. 깎아지를 듯한 장엄한 태산의 위엄을 앞에 두고 꼬불꼬불 나있는 산등성이 길을 걷노라면 마치 한 폭의 동양화 속을 걷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길 옆이 까마득한 낭떠러지인 곳을 지날 때면 행여 발이라도 잘못 디딜까 제 앞 길 밑만 쳐다보며 조심스레 걸어갈 수 밖에 없었다. 그 길은 매우 척박했다. 돌 뿌리는 제멋대로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흙먼지가 가득했다. 한 걸음 앞의 길은 결코 아름다운 길이 아니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지난 길들을 되돌아보니, 우리가 걸어온 길은 한 폭의 그림 같이 아름다운 길이었다.

선교지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일수록 우리는 한 치 발 앞만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한 걸음 앞의 길은 투박하고, 형편없고, 척박하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수많은 걸림돌들. 우리는 눈 앞의 장애물을 조심스레 피하며 묵묵히 걸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사역이 한 걸음 앞 길만 봐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실상 우리는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략회의는 변화된 현지 상황에서 척박 하지만 아름다운 길을 걷는 우리들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



청년을 통해 복음의 전파를 꿈꾸다!

손충성 선교사

터키

서양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또한 선교사 현신 숫자가 감소되고, 교회와 청년들의 선교적 관심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현재, 선교지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선교사들의 활동은 점점 소극적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다. 캠퍼스사역과 전문인선교에 대한 이해와 관점의 변화들로, 목회자 선교사와 다양한 신분과 배경의 사역자들이 선교지에 역동성을 일으켰지만, 선교지 외적으로는 결혼과 직장, 선교 훈련과 파송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교사도 점점 고령화 되고, 이는 현장 사역의 위축으로 다가온다. 선교지의 내적인 정치적 상황뿐 아니라 선교사들의 고령화는 변화와 충돌 속에서 해방구를 찾는 현지 청년들에게 접근하고, 그들 안에 잠재된 복음의 필요성과 사역의 가능성에 대한 돌파를 하는 데 있어 현장의 필요와 선교 사역 간에 큰 간격이 생기게 한다.

11

한복 문화체험





변화를 꿈꾸는 청년들

이 곳 터키 또한 선교지 전반적인 내·외적인 변화와 선교사의 노령화 등 여러 문제가 난무한 곳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교사를 동원하는 이유는 바로 사역지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청년들 때문이다. 이들은 부모세대와 달리 이슬람에 매여있지 않고, 변화에 수용적이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한다. 청년들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사상과 종교, 문화에 대해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면서 개인 안에서 강한 내적 충돌을 일으키고, 이 내적 충돌은 빠른 정보 소통을 매개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갈망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깝고도 먼 청년들

지난 몇 년 전만해도 삼성은 알아도 한국은 알지 못했던 현지 청년들이 이제는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건넨다. K-Pop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에서는 코리아 페스티벌을 자체적으로 열어 한국 전통 옷을 선보이며, 스스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어본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행사를 돋고, 한국어 교사로 일을 하며 한류에 편승하여 복음을 전할 영혼들을 찾으려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으로 역부족이다. 평균 스무 살 정도 차이가 나는 현지 청년들과 그의 교제는 늘 한계가 있고, 가정과 사역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의 접근에는 항상 조심성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 문제가 난무한 곳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교사를 동원하는 이유는
바로 사역지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청년들 때문이다.

12

청년동원=선교동역

터키에서는 이미 개척된 교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특성과 청년들의 상황에 따라 분명하고 통일성 있는 비전과 목적을 갖고, 다양한 훈련 기간과 훈련 형태로 현지 대학청년들을 접촉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같은 문화 영향력 속에서 자란 미디어 세대인 현지 청년들과 단기청

현지 청년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하는 청년 단기선교사





캠퍼스 사역

년들과의 교제와 사귐은 어떠한 사역적 접근보다 더 큰 효과를 보여준다. 분명한 복음의 확신과 선교적 비전을 가진 단기 청년들은 장기 선교사와 함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장기 선교사와 현지 청년 사이에서 강력한 촉매 역할을 한다. 복음이 보다 효율적이고 분명하게 증거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사역! 이것은 성경을 가르치며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어가 부족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물론 장기와 단기사역자가 서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훈련사역에 장기 선교사가 비전과 훈련계획을 가지고 다른 선교사역만큼 실제적으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고, 교회 성도들만큼 만나서 상담과 멘토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빼앗긴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보았다. 그러나 동역자를 얻는 데는 그만한 시간과 노력은 필요하다. 당장의 효과와 집중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후배 선교사 세대들이 더 분명한 확신과 전략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돋는 것 또한 장기 선교사들의 중요한 사역이다.



아웃리치 청년들의 전통문화공연-이 중 두명은 FA와 단기선교사로 다시 현장에 왔다

오라! 선교지로!

이미 선교지는 이전처럼 고립되고 정체된 곳이 아니다. 경제적 이유로, 국가간 분쟁과 전쟁으로 이동하는 수많은 민족들로 한 도시 안에서 여러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를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통해서 준비된 눈 먼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 선교지에서 머무는 길고 짧은 시간은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3개월, 6개월, 1년이던, 인생의 십일조이던, 남은 인생 전부이던,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현장으로 나아 올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할 청년들이 선교지로 오기를 바란다!

후배 선교사 세대들이
더 분명한 확신과
전략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돋는 것 또한
장기 선교사들의
중요한 사역



캠퍼스 사역

캠퍼스 사역 예수님을 만나다

박한결 선교사
동아시아 A국

현장의 제자들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는 일이 자주 생기다보니 아웃리치로 현장에 방문했던 청년들에게 제자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복음을 흘려보내 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따금 이들을 통해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선생님! OOOO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와 매주 만나서 나눔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청년의 들뜬 목소리는 제 마음 또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캠퍼스의 열정과 가로막힘

2013년 겨울 동아시아 A국으로 파송을 받은 우리 가정은 역사 깊은 I지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던 중, 2년 전 I지역의 타 대학 한국어 선생님의 공백으로 지금의 캠퍼스로 옮겨와 사역하고 있습니다.

비록 외진 곳에 위치해 있지만, 여호수아 14장 갈렙의 고백처럼 “주님! 이 캠퍼스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 하며 하나님이 캠퍼스의 주인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기대

14

아웃리치 청년들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6개월 만에 동아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0여명의 학생들이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 긴장 반으로 시작된 캠퍼스 사역! 삼삼오오 모여 있는 학생, 강의실에서 자습하는 학생 등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한명이라도 만나기를 기대하며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캠퍼스 곳곳에 있는 CCTV와 지켜보는 눈이 많았기에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을 귀 있는 학생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과 작은 모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매주 정한 시간에 모여 성경을 읽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임 하던 학생이 캠퍼스 내 전도를 하다가 적발되어 심한 문책을 당하게 되면서 이마저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일로 복음에 대해 소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을까 염려되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전한 학생들과의 교제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캠퍼스 사역

L자매와의 만남, 거절 그리고 도움

L자매와의 첫 만남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듯 캠퍼스 땅을 밟으며 찾아간 한국어센터 사무실에서였습니다. 당시 L자매는 정확한 발음의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며 저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캠퍼스 내 잘잘한 불편사항을 해결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는 L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대학 내 보장된 신분이 L자매에게 신뢰를 주었을 것이라 생각되어 조심스럽게 예수닄재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L자매는 냉담하게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 를 피했고, 이후 L자매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모임 또한 없어지면서, ‘더 안전한 방법으로 학생들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기도할 때, 동아리에 대한 마음을 주셨지만, 동아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이대로 멀어지나 싶던 L자매와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었고, 동아리 회장 경험을 갖고 있었던 자매의 행정적인 도움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6개월 만에 동아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0여명의 학생들이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5

한국행 유학과 도전

L자매는 한국의 아이돌, 드라마, 영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고등학교 때는 한국 아이돌들이 자매의 유일한 돌파구였고 휴식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류를 넘어 한국어를 배우는 것으로 옮겨가 결국에는 한국에서 석사를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영어 전공자가 좋아하는 아이들을 봐야한다는 이유로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L자매는 확고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들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과감하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자유



롭지 못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자매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아이돌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기를 기도하며 한국 유학을 도왔습니다. 유학 전 마지막 여름, 아웃리치 온 청년들에게 L자매와 교환학생으로 가는 제자들을 소개해 주면서 “너희들의 아웃리치는 여기가 아니라, 한국에서 시작되는 거야!” 라며 한국에서 다시 한 번 복음을 전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알아가기

L자매는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청년과 가게 된 크리스천 래퍼 비와이(Bewhy)의 공연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래퍼의 삶과 신앙고백이 담긴 가사 중 ‘자를 사랑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들으며, 놀랍고 혼란스러워 했고, L자매는 예수님의 어떤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전했고, 그분에 대해 알아가는 모임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한국에 잠시 방문했을 때 우리 부부는 L자매를 만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매는 “선생님, 저도 선생님 가정과 같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선생님 가정은 정말 행복해 보이고 따뜻해 보여요.” “우리 가정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 L자매는 깊은 미소를 짓습니다. 아직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L자매는 성장해 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L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중보자들과 수고를 마다 않는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L자매는 예수님의 어떤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비와이콘서트에서





캠퍼스 사역



동아리 내 문화수업

숨은 보석 찾기

17

이 곳의 어려운 환경과 종교적 제제 속에서도 청년들과
의 교류를 위해 문을 연 동아리에 1,2학년의 순수한 학생
60여명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 기숙사 생
활을 하고, 하나씩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의 얼
굴에는 자유로움과 긴장감이 공존해 있습니다. 때 묻지 않
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의 감시와 사상교
육 속에서도 동아리 활동과 교제를 통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학생들과 깊은 신
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안타깝지
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시고,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청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학생들이 학교의 감시와
사상교육 속에서도
동아리 활동과 교제를 통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한국 유학 후 돌아오는 학생들과 지속적인 관계와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2. 기도로 만나고 있는 동아리 학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도록
3. 새로운 종교법으로 인해 사역과 현지 교회와의 연합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4. 가정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자녀들의 현지 학업과 교육을 열어주시도록



청년 단기선교사 이야기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유진현 간사 TIM본부
유니개, 리엘 선교사(인터뷰) 동아시아 A국

18

2011년 8월, 터키 이스탄불과 동아시아 U지역으로 첫 발을 내딛은 FA(대학청년전방개척훈련)는 2018년 3월 네팔,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등 3개의 지역으로 14기를 파송하였다. 7년 간 6개국 8개 지역으로 총 226명의 청년들이 선교현장으로 나아갔다. 매 기수마다 FA로 재연장하거나, TP단기선교사로 신분을 전환하여 현장으로 다시 현장으로 나가는 청년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력을 쌓고, 재정의 부여함을 뒤로하고 한국과는 다른 선교지에서의 삶을 살아보고자 돌이킬 수 없는 청년의 시간을 선교지에서 보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청년들! 눈에 띠는 성과가 아닌 현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들을 다시 현장으로 나아가게 한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로 청년들이 사용되며, 이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 하기를 기도한다.

성탄절 모임을 기뻐하며





캠퍼스 사역

Q FA로 끝내지 않고, TP단기선교사로 전환해서 다시 현장으로 나가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유니게 관계를 중시여기는 이 나라의 문화 안에서 FA 5개월은 친구들과 친해지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어요. 친구들과 그 땅을 알아갈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친구들의 고민을 내 고민처럼 공감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구들을 변화시키실지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면서 다시 이 땅을 밟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리엘 저도요. 합숙 훈련 받을 때는 현장에서의 5개월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막상 친구들과 친해지고, 속 섞이던 친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쉽기만 했어요. 더 변화될 친구의 모습도 기대되니까 더 있고 싶었어요.

Q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경력을 쌓아야 할 때 선교지로 나가는 것에 대한 자신이나 가족들과의 갈등은 없었나요?

유니게 고등학교 때 조기취업 후 13년 동안 쉬지 않고 일만 했어요. 예쁜 옷 못 입고, 맛있는 거 못 먹고,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하는 등 내려놓기 어려운 현실과 이후 앞날에 대한 많은 염려들이 있었지만, 선교를 경험해보지 않고 포기한다면 그 후회가 더 클 것 같았어요. 선교의 기쁨이 어떤 지 짧게나마 경험하고, 점점 복음의 문이 닫혀가는 그 나라와 소수민족 친구들을 위해 하락된 시간까지라도 책임을 다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갈등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19

리엘 사실 다른 어떤 어려움보다 결혼과 재정에 대한 내·외적 갈등이 가장 어려웠어요. 가족들뿐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살면 결혼은 언제할거냐, 돈은 언제 모을 거냐’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저도 사람이기에 이에 대한 불안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불안이 커질수록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사소한 것 하나하나 의지하게 되었어요.

먼지 날리는 산골 친구집 방문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구들을 변화시키실지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면서
다시 이 땅을 밟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캠퍼스 사역

Q 같은 기수, 같은 FA팀 안에서 단기선교사로 신분을 전환하다보니, 다른 단기선교사들과는 달리 다시 공동체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이전보다 다듬어진 변화된 모습이 있나요?

유니게 10년 넘게 혼자 살아온 저는 혼자가 편하고 좋았어요.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생활은 저와 맞지 않았죠. 그래도 몇 달은 나 자신을 감추고 가면을 쓴 채 생활할 수 있었어요. 내 안에 분노가 차 있는데도 기도할 때는 거룩한 단어들을 구사했고, 미워하지 않는 척, 화나지 않은 척을 했어요. 진짜 힘든 시간이었죠. 그러다 하나님께 욕하고 따지면서 솔직한 감정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내 관계가 풀려갔어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해가 아니라,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걸 배웠어요.

리엘 부끄럽게도 저는 먼저 섬기게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어요.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과거의 태도가 훈련되면서, 누군가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설거지, 화장실청소, 요리 등을 먼저 하면서 수고의 기쁨을 배웠어요.

Q 청년들은 현장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대요, 주된 사역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20

리엘 주 사역은 대학생들과의 관계사역 이었어요. 평일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주말에는 문화사역을 통해 친구들과 교류했어요. 어느 정도 관계가 안정된 친구들에게는 교회를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했고요. 친구들 대부분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홀로 생활해요. 여러 가지 개인사와 고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이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알게 되어 감사하고 또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왕왕해요. 이런 말은 세상 금은보화보다 값진 선물과 같아요.

순수한 영혼의 소수민족 자매들





캠퍼스 사역



소수민족 축제

몸이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매번 주시는
마음은 외부인이 찾지 않는 이곳을 위해
기도해줄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21

Q 현지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마음에 울림을 주었던 사역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유니게 성탄절 예배 때 졸업 후 직장에 다니는 친구가 버스로 8시간 거리를 와 주었어요. 되돌아가면서 “언니, 우리 OO족 사랑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데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걸 확인 받는 것 같았어요.

리엘 방학 기간에는 친구들의 고향집을 방문해요.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비포장도로를 몇 시간을 가야하는 곳이에요. 여기도 시골 인심이 후해서 국그릇 같은 밥공기에 밥을 꾹꾹 눌러서 주세요. 한 그릇을 비우면 또 한 그릇 주시고... 한 그릇만 먹으면 예의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밥 먹는 것 또한 사역이라는 걸 친구 집에서 경험했어요. 턱까지 차서 ‘하나님 넘어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 소화되게 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먹었어요. 우스갯소리로 ‘한손에 복음 들고’가 아니라 ‘한손에 소화제 들고’였어요. 옷 한 벌로 2~3주를 버티기도 하면서 1~2달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몸이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매번 주시는 마음은 외부인이 찾지 않는 이곳을 위해 기도해줄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땅을 밟고, 눈에 담으려 했어요.



Q 앞으로의 진로나 비전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유니게 장기선교에 대한 비전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첫발을 내딛고 나왔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장기면 어떻고, 단기면 어떻고, 선교사의 부르심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은 이곳에, 내일은 저곳에, 그렇게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리엘 기난하기 때문에,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혹은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 한계를 느낀다는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게 돼요. 친구들 중에는 고향에서 차나 꿀을 재배해 팔거나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포함 주변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현지 친구들의 자원이 만나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22

인터뷰를 마치며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 전도서 12:1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오기를 소망한다.

유니게, 리엘 선교사는 2016년 9월 FA 파송 / 2017년 4월 단기선교사 파송으로 2번에 걸쳐 동아시아 A국에서 사역하고 지난 4월 입국했다. 가족과 지인들은 현장사역을 종료하고 한국에 머물기를 바랐지만, 점점 달혀가는 그 땅의 현실을 알기에 마음 편히 한국에 머물 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눈 먼 현지 청년들을 모른 체 할 수도 없었기에 이들은 5월 어느날 다시금 선교지로 나아갔다.

현실의 문제에 고노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눈 먼 교회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기를, 다시없을 청년의 때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적은 무리의 청년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 교회의 청년들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오기를 소망한다.

선교사 정착기

믿음으로 성장하는 청년 공동체

임요셉 선교사
베트남



열방에서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위치한 공산주의 국가로 1986년부터 시장경제를 도입한 정부는 통일 이후 종교생활을 기본적으로 억제해 왔습니다. 1992년 개정된 헌법 제70조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와 공산당이 만든 종교법을 따라야 합니다. 현재 베트남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의 약 1%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복음전파는 많은 제약이 있어 모든 종교적인 모임은 항상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23

그레이스 센터 동역자들과 식사 교제





열방에서

믿음의 공동체 – 모세, 디모데, 여호수아

2013년 2월 베트남 땅을 밟은 우리 가정은 현재 호치민에 거주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호치민 대학교에서 언어공부를 하던 중 다리를 다치게 된 저는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집에서 현지 대학생에게 일대일 과외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분이 쌓이게 되면서 이 친구의 한국식 이름이 “믿음”이라는 것과 사골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작은 기숙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몇몇 친구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들과의 만남이 후 제 마음에는 베트남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자, 마음이 온유하고 강건한 자들로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15명으로 시작한 기숙사는 현재 모세, 디모데, 여호수아 공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매주 목요예배와 두 달마다 진행되는 전도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입소 조건이지만, 이를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 공동체는 주 1회 연합예배를 드리며 졸업생들이 멘토로 간증을 나눕니다. 물질적인 삶의 여유는 없지만 영적고아들을 섬기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으로 전도 집회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고향의 어려운 교회를 찾아다니며 귀한 도움의 손길로 사랑을 전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의 섬김과 나눔을 보고 있자면, 성전 현금함에 렙돈 동전 두 개를 넣는 과부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24

이들과의 만남이 후 제 마음에는 베트남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자, 마음이 온유하고 강건한 자들로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기숙 공동체 청년들과의 예배





그레이스 센터 수업

부르심 따라 – 뚜언 이야기

처음 기숙 공동체를 시작할 때부터 전체 리더를 맡았던 “뚜언”형제는 근무환경과 보수가 좋은 직장인 은행을 내려놓고, 신학공부를 위해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형제의 모습에 기쁨과 걱정이 교차되기도 했지만, 우리 공동체는 그 모습에 도전을 받고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하신 돌봄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학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삶을 기숙 공동체 친구들에게 간증하며 신앙의 모델이 되어 준 뚜언형제가 공부를 마치고 곧 귀국합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내려놓고 헌신한 형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 행하실 모든 일들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뚜언형제의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과 변화의 시간들을 경험하며, 씨 뿌리는 농부의 심정과 추수꾼의 심정이 해아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보안국가로 여러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더욱 말씀에 대하여 깊이 있는 훈련이 이루어 질 것이고, 형제를 중심으로 진정한 재생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트남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 티 이야기

“티”형제 또한 기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역에 기쁨으로 함께하는 청년 리더입니다. 무당이었던 어머니를 둔 티형제는 아들을 낳기 위한 어머니의 주술행위와 굿 등 온갖 노력 끝에 태어난 귀한 아들입니다. 유년 시절 원인 없이 복부가 팽창하는 이상한 병에 걸려 여러 유명한 절을 찾아가 굿을 하고,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고칠 수 없어 치료를 단념했을 때,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교회라도 가겠다는 가난한 마음으로 가게 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가정이 개종을 하였습니다. 티형제는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어릴 적 흔적인 듯 몸이 왜소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배가 팽창되어 있는 편이지만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무속신앙에 열심인 티의 이모 또한 2년 전 복부에 군이 들어가 복수가 차는 등 10년 전 티와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에게 모든 굿을 다하고 인근의 모든 병원을 방문하였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치유를 경험한 티에게 연락한 이모는 예수님을 살려만 주시면 자신 또한 예수님을 믿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티는 이모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숙 공동체에 중보요청을 했고, 우리는 이모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



기숙 공동체 청년들과의 예배

역하고 있는 한국선의재단과 한국, 베트남 청년 오케스트라팀의 공연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이모의 치료를 도왔습니다. 패혈증으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깨끗이 치료 받고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함께 손 모을 때, 생각하지 못한 통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 기숙 공동체 친구들은 더욱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 바오와 끼 형제 이야기

“바오”형제는 건축학과를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는 형제로 졸업 후에도 기숙 공동체에서 스텝으로 섬기며 청년들에게 도전을 준 귀한 형제입니다. 동생 “끼” 또한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며 약사가 되기 위해 약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안정적이고 좋은 편이라 친구들 사이에서 멘토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두 형제의 부모님은 중부지역에서 현지 교회 목사로 사역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려 오랜 기간 투병 하시다 지난 해 돌아가셨습니다. 50세 중반의 현지 교회 사모에게 찾아 온 갑작스러운 병과 죽음은 호치민으로 내려와 기숙사 생활하며 부모와 떨어져 지냈던 바오와 끼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부모님의 사역과 근황을 기도제목으로 나누던 친구들이었기에 함께 중보 하던 우리로서도 어머니의 죽음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낙후한 지역에서 교회사역을 하면서 육신을 돌볼 경황이 없어 병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더욱 아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로가 발견되어질 그날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형제의 고백이 모두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으니”라는 말씀이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바오는 일본 유학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던 모든 상황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도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일본 땅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하며 지내는 바오의 삶은 기숙 공동체 친구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 그레이스 센터

그레이스 센터는 장애우 청년 8명이 생활하는 공동체로 완전 중증보다는 일부 장애를 지닌 친구들이 서로의 장애를 도와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 여건상 장애를 가진 가족의 돌봄을 가정이 담당하기 힘들기에 그레이스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이들을 돌보는 여러 필요들이 너무 많아서 힘겨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보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늘 마음의 울림이 되어 거룩한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만날 때마다 해맑게 웃는 이들과의 만남이 지속될수록 나의 영혼이 치유 받고 재충전되는 시간이 주어지면서 오히려 감사의 마음이 커졌습니다.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다보니 무엇인가를 추진하는데 일반인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 센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청년들의 발전을 위해 후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들도 수고함으로 공동체가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모델을 기도하며 찾았습니다. 그레이스 센터가 위치한 곳은 주위에 영어학원이 없는 지역이라서 센터 일부를 교실로 만들어 인근의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도록 도왔습니다. 호치민에 거주하는 외국인 친구들과 여름 아웃리치 팀들은 그레이스 센터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경이야기로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경교육과 영어교육이 진행되었고, 교육장소와 예배장소가 동일하여 학생들을 주일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도 더욱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장애우 청년들의 성장과 영어교육을 통한 센터의 안정적인 자립이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그레이스 센터가 예배의 장소로 준비되어 가는 지금, 장애우 청년들의 수고와 땀 흘림을 알기에 이들의 믿음과 영적 성장에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지만 이들이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풋대 앞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세요.

공산당 외에는 정부 요직에 나갈 수 없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주의 청년들이 베트남 곳곳에 뿌리내려 주님의 동역자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 충만함이 믿음의 청년들을 통해 증거 되고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27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풋대 앞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세요.



기도제목

1.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2. 기숙 공동체 생활과 예배를 통해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십자가의 전달자들로 잘 양육되도록
3. 그레이스 센터 친구들의 건강과 영적 성장,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4. 두 딸(나라, 하늘)의 건강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해가고, 삶 가운데 그 분과의 동행으로 하늘의 형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열방에서



선교사 정착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사용법

보아스 & 나오미 선교사

인도



깔림퐁은 인도의 시킴과
웨스트 벵갈주인
북동부 지역에 위치하며,
부탄 서부 쪽에 인접한 해발
1,250m의 인구 4만 명
남짓한 작은 도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2013년 12월, 인도로 파송 받아 현재 '깔림퐁'이라는 작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깔림퐁은 인도의 시킴과 웨스트 벵갈주인 북동부 지역에 위치하며, 부탄 서부 쪽에 인접한 해발 1,250m의 인구 4만 명 남짓한 작은 도시입니다.

과거 부탄의 영토였던 이곳은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문화와 물물이 교류되었던 곳으로, 히말라야가 둘러져있는 시킴과 깔림퐁, 그리고 웨스트 벵갈 북부, 아루나찰 프라데시 산간에는 여전히 티베트계 라마불교의 문화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불교사원들은 부탄식 이름, 부탄식 양식, 부탄식 승가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부탄 본국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다수의 부탄인들이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아스 태권도장 오픈식에 함께 한 친구들



열방에서

작은 자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

1976년 인도태권도협회가 출범하면서 인도의 태권도 인구는 급증하였습니다. 작은 소도시에 불가한 깔림퐁이 인도에서 제일 먼저 태권도가 시작된 곳이라고 하니 그 뿐 듯함은 더 배가됩니다. 파송 전 태권도 사범 및 체육교사를 했던 보아스선교사는 2015년 11월 깔림퐁의 태권도 협회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심판으로 초대되어 이 지역에서 태권도사역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2016년 2월에는 네 팔에서 열리는 서남아시아 8개국 태권도 한마당에 참가 준비를 하는 관장들에게 새로운 품새와 격파를 가르쳐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고, 그해 4월 북인도 잘파구리에서 열렸던 대회에서는 참여에 의미를 두고 지도했던 아이가 '품새와 겨루기'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등 생각지도 못한 메달 소식에 놀라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깔림퐁 태권도 협회의 추천으로 작년 5월에는 부탄에서 개최한 국제 태권도 대회에 '품새심판부위원장'에 위촉되어 참석한 자리에서 부탄 태권도 사무총장이 보아스 선교사에게 우리나라 말로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여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곳 깔림퐁에서 태권도와 체육 지도사로 조금씩 입지를 다져가며 현지인들과 친분을 쌓아가던 우리는 지난 2월 25일 기대하고, 고대하던 복음의 전초기지인 '보아스



태권도 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을 시작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와 관계하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셔 축복의 말씀과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종교를 가진 분들이었지만 기쁘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했고, 아버지의 영이 가득한 자리였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과 민족의 믿음의 싸앗

우리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와 관계하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셔 축복의 말씀과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4년 간 교제해 왔던 태권도차세대 청년 '살림수바'가 보아스 태권도 주니어 사범으로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살림은 힌두교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5년 전부터 교육비 외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 왔습니다. 작년 겨울 태권도주니어사범으로 제의를 받은 이

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아이가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해주길 바랍니다.'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태권도 센터' 오픈식 전, 우리는 살림의 부모님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로 무장하고 고향을 방문하였습니다.

학교 행사에서 합창하는 선생님과 학생들





열방에서

비포장도로인 산길과 울창한 정글 숲을 지나 3시간 남짓 가 도착한 작고 아담한 마을, 그 곳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살림의 안식처이자 기도처인 산에 갔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네가 동생과 가정을 책임져야하고, 기독교는 안 된다’하시는 아버지와 무슨 일 이든 주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머니로 인해 그 답답함을 풀기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며 잠도 자는 곳이라고 합니다. 살림의 여동생 소냐는 몇 년 전, 열병이 났었는데 병원을 가야함에도 주술로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아스선교사가 소냐에게 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스트레칭을 가르쳐 주고 헤어질 때 꼭 안다주며 귀속말로 ‘너를 위해 기도할게’라고 하니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귀한 만남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고,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살림은 1년 전 민족을 위하는 에스더의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방 벽에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와 살림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히는 일들이 일어나 제2, 3의 믿음의 살림이 나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있는 이 땅이 예수님으로 인해 축복의 땅으로 바뀌길 기도합니다.

31

주를 찬양하리라

경직되어 있던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을 피우고,
선생님들에게는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귀한 시간

나오미 선교사는 합창지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2015년 말 나오미 선교사가 새롭게 문을 여는 학교 오픈식 합창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합창을 지도하고 이를 지켜보던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요청과 참여에 의해 선생님들 또한 합창을 준비하였습니다. 한 달간 진행된 음악수업은 경직되어 있던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을 피우고, 선생님들에게는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인들의 소개로 알게 된 학교와 마을 등 여러 곳에서 음악사역으로 러브콜을 받아 왔던 나오미선교사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 학교의 요청으로 크리스마스 노래를 가르쳤던 것이 계기가 되어 올 한해 5학년부터 8학년의 음악수업을 맡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영화로 인도의 음악을 접한 이들은 인도만큼은 어느 나라보다 음악수업이 잘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인도는 악보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보니 음악은 사랑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박자로, 리듬으로 했던 습관들



합창 수업하는 학생들

을 고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음악수업을 하고 돌 아온 날은 기진맥진하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날이 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열정과 재미있어하는 모습, 음악 수업 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새로운 힘이 솟아나 감사함으로 수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은 교육을 위한 합창을 지도하지만,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이들에게 전하고, 이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수록 “마태복음 5: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는 말씀이 더욱 가슴에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스쳐지나가는 말과 행동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인지라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부끄러우리만큼 주마등처럼 지나가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고, 또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복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의 은혜이고 계획이었음을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손 모아 주시는 동역자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 ‘보아스 태권도센터’가 복음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깔림풍에 사는 부탄 로얄 패밀리들과 부탄 땅에 보아스 태권도의 이름이 전해져,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도록
-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홀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딸 이삭에게 임하고, 현재 겪고 있는 신앙의 갈등 속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 삶의 모든 운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부부가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 하도록
- 주니어 사범인 ‘살림 수바’의 믿음의 성장과 살림을 통해 가족이 구원을 얻도록



인생 3막, 캐나다 선교사의 발자취를 찾아

유진현 간사
TIM본부

26년 전 (고)하용조목사님 등 12인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남동 기도모임은 지금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이상자권사님 댁에서 온누리교회의 여러 협력기관과 장로님들이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한남동 기도모임의 시작과 함께 1993년 1호 선교사로 중국 북경으로 파송 받아 중국동부 선교베이스를 개척하며 두란노해외선교회 설립의 산파역할을 하셨던 최선수 장로님이 지난 5월, 오랜만에 한남동 기도모임을 찾아주셨다. 1호 선교사로서 중국 전문인선교의 길을 여심으로 많은 성도들과 선교사들의 귀감이 되셨던 장로님의 간증은 그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감사의 시간이 되었으며, 여전히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노년을 보내시는 삶은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었다.

33





비전펠로우십 전시관 내 최선수장로님

최선수 장로님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이시다. 은퇴 후 지인의 소개로 크리스마스 씰(Christmas seal)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결핵퇴치를 위해서 힘써왔던 '닥터 홀'과의 만남(당시 98세)을 계기로, 한국에 온 캐나다 선교사들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고, 그들의 수고와 감사를 모르고 지냈던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드셨다고 한다.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약 5년간 캐나다 전역을 돌아다니며, 182명의 캐나다 선교사들의 자료와 유품 등을 수집하여, 비전 펠로우십 내한 캐나다선교사 전시관을 설립하였다. 비전 펠로우십 전시관은 2011년 개관, 캐나다 대사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캐나다 선교사의 발자취를 찾아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다.

위. 한남동 기도모임의 시작
아래. 북경반석농장 오픈식



최선수 장로님은
캐나다 선교사들에 대한
감사와 미안한 마음으로
비전 펠로우십
내한 캐나다선교사
전시관을 설립하였다.



본부에서

현장스케치-TIM 재능기부 OT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최용성 간사
TIM본부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선교’,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온누리교회는 2017년부터 선교작정 현금과 더불어 재능기부 서약을 시작했다. 교회 안의 좋은 달란트들을 교회 밖 선교의 현장에 투입하여 실질적인 섬김과 도움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더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돋는 것을 기대하며 진행해 온 온누리선교 재능기부 신청이 올해로 2년째를 맞이했다.

온누리선교 재능기부 신청은 크게 선교사 및 자녀 케어 분야와 선교기관 및 기타 선교사역 분야로 나눠 재능기부자를 모집하였다. 선교기관 및 기타 선교사역분야 중 ‘선교현장사역 섬김’ 항목에 응답한 79명을 대상으로, 두란노해외선교회(이하 TIM)는 4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현장사역 재능기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35

재능기부 1차 오리엔테이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개인과 교회에 큰 축복임을
알게 하는 사역이 될 것

36

1, 2차 오리엔테이션은 TIM소개와 재능기부자 격려, 간증, 재능기부가 필요한 현장의 소개, 지원 안내의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TIM 지역담당 스텁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재능기부자들과의 Q&A 시간을 통해, 현장의 구체적인 필요와 재능기부자들이 현장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역적인 부분을 더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

오명집사(서빙고 중종로공동체)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달란트가 있다는 것과 그 달란트가 선교현장과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간증해 주었다. 이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자 모인 청년 기부자, 중년의 부부 기부자, 은퇴 후 노년의 기부자 등 다양한 연령대의 재능기부자들은 그 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고 답을 들으며, 현장 사역과 현장 선교사와 함께 동역할 수 있다 는 기대감을 갖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지원자 모두는 현장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원이었고, 앞으로 현장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율을 통해서 몇몇의 지원자는 현장을 밟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번 현장사역 재능기부 오리엔테이션과 앞으로의 현장 사역은 선교를 향한 마음은 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개인과 교회에 큰 축복임을 알게 하는 사역이 될 것이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그날을 꿈꾸며, 모든 시간을 순직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TIM 재능기부 간증 능력, 주께 있네

오명집사
온누리교회 서빙고 중종로 공동체

샬롬! 서빙고 중종로 공동체 오명집사입니다. 군인이었던 저는 뜻밖에도 부대에 전입된 지 6개월 만에 국방부 과장으로 차출 발령이 났고, 처음으로 민간교회인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선교강의 통해 선교를 배워가면서, 2000선교 목요선교예배에 참석해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함께 중보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마다 충격이었던 것은 선교사님과 자녀들의 건강회복이 기도제목의 반 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게도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의사이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혈자리와 한방요법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합법적인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지침요



재능기부 2차 오리엔테이션





현장에 대해 알아가는 참석자들

법사자격을 취득했고, 아내와 딸을 대상으로 마루타 실험을 하면서 시행착오와 돌팔이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역의 역할은 점점 다양해졌고 제 능력으로는 벅찬 시간이 찾았습니다. “점점 일이 커지는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해요?” 40일 새벽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들어졌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간구의 응답일까요? 새벽기도 완주 후 대체의학을 전공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의 ‘통합대체의학’으로 사역의 폭을 넓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몇 번의 시술을 받던 장로님의 권유로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고레다라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연세가 있으신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인 선교사님은 몸살감기로 기운이 없고 기관지가 안 좋으셨는데, 시술을 받던 중 눈물을 흘리셔서 참 당황스러웠습니

“점점 일이
커지는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해요?”
40일 새벽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들어졌습니다.



본부에서

다. -제가하는 시술은 하기 나름이지만 통증이 수반됩니다. 특히 아웃리치에 가서는 다시 못 만날수도 있다는 생각에 단 한 번의 시술로 결판을 내기 위해 눈물이 쪽 빠질 정도로 강하게 시술하기도 합니다. -

내가 치료욕심에 너무 세게 했나? 싶어 “너무 아프세요?” 여쭤봤더니, 부인선교사님은 “아닙니다. 생면부지 모르는 집사님을 1400고지가 넘는 이곳에 보내시고, 치료까지 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은혜에 눈물이 나네요.” 저는 할 말을 잃고, 툭 떨어지는 눈물을 감춰가며 시술을 마쳤습니다.

물질적인 부가 쌓이면 나중에 더 멋지게 봉사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고 있었던 저는 네팔을 다녀온 후 교회사역을 제외한 모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가장 길게 할 수 있고, 어떠한 힘든 역경이 있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각 분야의 다재다능한 여러분들은 동역자들의 권면과 동역,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 섬김의 자리 등에 순종하고, 그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망설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가라하시는 선교 현장을 가고, 제게 보내주시는 선교사님들을 감사함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돋는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9

동역자들의 권면과 동역,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 섬김의 자리 등에 순종하고,
그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망설임 없기를 바랍니다.





본부에서

TIM 재능기부 소감 순종함으로 주님의 통로가 되는 우리

박미선 자매
온누리교회

40

3년 전 11월 요르단에서 단기선교사로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새해 첫 주일과 둘째 주에 온누리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 헌금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상으로 다가왔다. 선교지에서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에 힘들고 슬펐던 시간들을 이겨내고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이렇게 함께 기도해주셨기 때문이 있음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결코 선교사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커다란 위로로 다가왔다. 그 이후로도 매주일 거의 빠짐없이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에 평안함을 느꼈다. 그 다음해가 돌아오고 또 새해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선교현신예 바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번엔 헌금을 작정하는 것 뿐 아니라 재능을 기부한다는 형태로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도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짧게나마 선교지의 필요들을 느끼고 온 나로써는 신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8년 올해엔 재능기부의 영역이 다양해지고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었음을 보게 되었다. 선교지에 도움을 드리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다양하다는 사실에 다시금 놀랐다.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
헌금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상으로 다가왔다.

현장으로 고고!





본부에서

나는 어린이사역과 현장사역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고 싶다고 표시하였고, 얼마 후에 TIM에서 준비한 ‘현장사역 재능기부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유라시아 지역, 서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과 중동, 아프리카,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 담당선교사님과 간사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선교현장의 사역을 소개받을 수 있었고,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할 수 있었던 시간을 통해서 선교지에 대한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선교현장과 그 곳에 필요한 재능기부자를 연결하시려는 노력들을 볼 수 있었다. 현재 재능기부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과 동역하고 계시는 두 분 집사님들

의 간증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재능기부자들에게 선교가 무엇인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었다.

용기 내어 재능기부자로 신청했지만 사실 내가 신청한 영역에 얼마만한 재능이 있는지, 선교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다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선교는 오직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 나는 순종함으로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 뿐이었다.

선교사님들과 재능기부자들의 동역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온 열방 가운데 세우기를 기도한다.





본부에서

현장스케치-MK중보기도모임 MK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진현 간사
TJM본부

선교사자녀(Missionary Kid / MK)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국내 정규교육으로는 배울 수 없는 국제적 감각과 열린 마음, 창의력 등 초문화적인 자질을 두루 갖춘 축복받은 아이라는 것이 대부분일거다. 하지만 긍정적인 이면에는 현장 교육 여건으로 인한 홈스쿨링, 특정 종교 교육으로 인한 일반학교를 다니지 못함, 같은 언어와 문화권에서 교제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외로움, 부모의 바쁜 현장사역으로 충족되지 못한 사랑 등 채워지지 않는 여러 요소들로 인해 많은 MK들은 정체성과 소속감, 정서적 불안정이라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과거와 달리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고 있는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MK들과 비교했을 때, 행복감을 누리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연세대 사회 발전연구소가 발표한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게 나

42





본부에서

왔다고 한다. 언어와 문화, 환경이 전혀 다른 선교 현장에 서의 MK들의 삶과 비교해 모국에서 자라는 어린이, 청소년들은 더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것 같지만, 그 렇지 않은 걸 보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도 한다.

부모선교사님을 따라 본부에 방문하는 MK들을 마주 할 때마다 환경적, 물질적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지 못한다는 미안함에 만감이 교차되고는 한다. 물질적 풍요는 줄 수 없지만, 이들의 영적 풍요를 위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중보기도가 아닐까 싶다.

가정의 달 5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자 제정한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부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국이 아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며, 제 3문화의 자녀라고도 불리는 MK들을 위해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

는 자들이 있음을 알리고, MK들이 이 기도의 힘으로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MK기도모임 현장을 다녀왔다.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MK기도모임은 본부스텝과 간증을 위한 선교사와 MK, 중보기도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현장 선교사는 본국에 머무는 동안 MK중보기도모임을 방문하여 현장 사역과 MK들의 소식을 전하고 보다 현실적인 기도제목을 전달하는데, 문자로 접하는 기도제목보다는 선교사가 직접 전하는 현장과 MK이야기는 기도의 간절함을 더 극대화한다.

매달 MK중보기도모임만큼은 빠지지 않는다는 김미숙 권사님은 2001년 선교지를 다녀온 후 MK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다고 한다. “선교현장에 잠깐이라도 다녀온 사

Welcome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43





MK를 위한 간절한 기도

람은 MK들을 위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장을 직접 봐야 상황을 알고 진정으로 마음에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교현장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MK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질병 중인 MK뿐 아니라 마음이 아픈 MK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하다는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권사님 마음을 가득 차지하고 있는 MK에 대한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MK중보기도 외에도 모임의 간식을 섬기는 윤숙 집사님은 “질병이 있는 MK들에 대해 기도할 때마다 애통해요. 그런데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MK들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들을 때 인 것 같아요. 조직화되거나 체계화된 교육과 사회에서 자라지 못해 역문화충격을 겪고 있는 MK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기도모임에 안 나왔다면, 저 또한 MK들의 상황을 몰랐겠지요. 그래서 더 MK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평가 속에 노출되어 있는 MK들의 어두운 현실이 아닌가 싶었다. MK들은 자신의 소명이 아닌 부모의 소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친한 친구와의 생이별과 익숙한 문화와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문화, 언어, 관계, 종교의

스트레스를 방파막이 없이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MK들에게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과 평가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 줘야 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MK라는 신분의 옷을 입은 아이가 아닌 평범한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은 어떨까?

MK중보기도자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이 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진실하고 애틋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기에, MK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선교지 어딘가에서 남모르게 아파하고 울고 있을 MK들에게 말하고 싶다.

“혼자라 느껴질 때에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네 얼굴은 모르지만, 그 누군가 너를 가슴깊이 품고, 너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이름을 한 자 한 자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선교현장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MK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MK 이야기

무섭고 떨렸던 스리랑카에의 학교생활

MK 유지혜

스리랑카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인해 잘
적응하고 있고
학교생활도 잘 적응해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2017년 9월 4일에 스리랑카로 파송되었어요. 스리랑카는 불교국이라서 마을마다 부처 동상이 있어요. 저는 스리랑카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온 누리교회에서 세운 All Nation International School 9학년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떨리고, 긴장되고, 무서운 기분이 들고,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친구들은 걱정과는 달리 저를 반기워하고 제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는 많은 배려를 해주고 이해해 줬어요. 그래도 제가 스리랑카어를 모르기 때문에 친구들과 있을 때 가끔씩 어려움이 생기기는 해요. 학교 점심시간에는 친구들과 차례대로 돌아가며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는데요, 스리랑카의 문화상 친구들은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먹어요. 그런데 저는 왼손잡이인데다 수저가 아닌 손으로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겐 당황스러웠지만,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보다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가고 있어서 감사해요.

저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다니는 “All Nation International School”에서 학교생활을 잘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건강과 눈이(뇌종양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 온전히 회복되어 친구들의 얼굴과 스리랑카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인해 잘 적응하고 있고 학교생활도 잘 적응해 가고 있어요. 기억하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본부에서

45

지혜의 가정은 2016년 1월 선교사 훈련을 받고 파송을 준비하던 중에 지혜가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어 선교지로 가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기도를 통해 수술과 치료를 잘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아 2017년 9월에 스리랑카로 파송되었습니다. 현재 지혜의 부모님은 지혜가 다니는 All Nation International School의 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혜의 뇌종양은 완치되었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시신경이 완쾌되어 건강한 눈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본부에서

MK 이야기 “포스트!!” 한국에서 날아온 생일카드

홍아리엘 선교사
중동 B국

46

저희는 새롭게 파송을 받아 현지에 온 지 5개월쯤 되고 있을 때 작은 아이 지온이의 생일이 있는 달을 맞았습니다. 그 때는 지인 한 명 없이 낯선 언어와 환경 속에서 겨우 집을 구하고 작은 살림살이조차 없어 새롭게 갖추어 가는 시기였고, 어학원은 입국하자마자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했고, 큰 아이는 학교에 가고 정말 정신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온이의 생일을 일주일 정도 앞둔 어느 날, 초인종이 울리고, “포스트(post)”-(이곳에서도 우편물을 포스트라고 합니다.)라는 한 마디 말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고 있다가 저와 아내는 거의 동시에 “아! 포스트~” 하고 누가 우편물을 보내왔을지 궁금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눈에 익숙한 봉투 디자인과 로고를 보고 본부에서 보낸 것임을 알았습니다. 먼 거리를 날아서 왔을 텐데도

아직 하얗고 깨끗한 봉투를 건네받고, 우리 가족은 우편 봉투 앞에 모여 앉아 호기심 가득 그리고 조심조심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곧 생일을 맞는 지온이를 위한 생일 선물과 축하의 글이 담긴 카드가 있었습니다. 평소 지온이는 누나와 스티커 붙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고 지온이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골랐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날아 온 동물스티커는 선교지에서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우와~ 누나 이거 봐!, 우와~ 아빠! 이거 봐~” 그 동안 낯선 나라에 와서 지온이도 적응하느라 힘들었겠지요. 주거와 생활의 안정에 집중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더 큰 마음을 주지 못 했는데 지온이가 많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조금 놀랐습니다. 지온이가 그동안 많이 심심했고 외로웠나보다 싶었고요. 그렇게 지온이와 누나는 스티커 선물을 가지고 며칠을 신나게 놀았습니다. 사실 남자아이라 그런지 사랑과 축하의 인사가 가득 담긴 카드는 동물 스티커 보다 격한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쁘게 잘 읽었답니다. “이거 누가 썼어?”, “내 생일을 아는 사람아?” 한국과 본부에 너희들을 위해 손 모으고, 선물을 준비하고 포장하고 또 발송하는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스티커는 현지인 선생님에게도 아끼지 않고 선물로 붙여주며 한국에서 온 것이라고 자랑도 했고요. 물론 우리 집은 말 할 것도 없이 여기 저기 돌고래, 코끼리와 동물 친구들이 벽과 서랍장에 붙여져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생일 선물로 받은 스티커와 편지는 많은 분들의 사랑, 손 모음과 함께 지온이 마음 속 가장 따뜻한 곳에 지금도 그리고 평생 붙여져 함께 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아이 우리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함께 손 모아 주시는 모든 분들의 자녀라는 생각이 더 확실히 듭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며 또 지금 이렇게 받은 사랑 기억하고 나누어 주는 아이로 자라도록 양육하겠습니다. 한분, 한분 깊이 감사를 드리며 어디선가 또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도록 힘써주세요.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분명히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누며 살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모임



4~6월 | FA 기도모임



4~6월 | MK 기도모임



4~6월 | 한남동 기도모임

선교사 파송



3월 | 승바울, 죄에스더 선교사 2기사역 파송

47



4월 | 새노래 선교사 신규파송



5월 | 전하리 선교사 신규파송

세미나 · 행사



4월 | 캠퍼스 사역자 전략회의



4월 | 캠퍼스 사역자 전략회의



4월 | TIM 서포터즈 1차 OT



4월 | TIM 서포터즈 1차 OT



4월 | TIM 서포터즈 1차 OT



4월 | 본부스텝 리트릿(천로역정)

열방에
교회를
세우는



본부에서

Yim

본부 소식 3~6월



5월 | TIM 서포터즈 2차 OT



5월 | TIM 서포터즈 2차 OT



5월 | 서남아시아 전략회의



48

5월 | 서남아시아 전략회의



5월 | 현지목회자 가정사역세미나

훈련



5월 | 2018년 1차 본부사역선교사 여는예배



5월 | 2018년 1차 본부사역선교사 소통의 시간



5월 | 2018년 1차 본부사역선교사 아웃팅



5월 | 2018년 1차 본부사역선교사 아웃팅



5월 | 2018년 1차 본부사역선교사 닫는예배

반석교회 비전교회 소양교회 수원영락교회

영원교회(원미구) 영원교회(소사구)

예수누리교회 예수향기교회 은광교회 의정부영락교회

일산함께하는교회 일산해림교회 진서골온누리교회

충만한교회 풍동교회 풍성한교회 하림교회 희망의교회

그레이스선교교회 나눔아트센터 대군통상

라이브교회 미아영문교회 서울성원교회

소원의향구교회 승복교회 예향교회 오륜교회

은평제일교회 임마누엘교회 중앙교회 하늘소리선교회

행복한주원교회 화평교회

AM(Asian Mission) 21세기푸른나무교회

열방교회 온누리소망교회 인천청지기교회

코스모스교회

충북

회남교회

전북

정읍순복음교회

전남

계산교회 성전중앙교회

완도성광교회 이읍교회

경기

서울

인천

경북

시외찬미교회

부산

부산부평교회

제8영도교회

대구

대구성원교회



기도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MK기도모임

매달 2째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선교관 301호

FA 중보기도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신관 미션홀

후원계좌

선교사 후원: 하나은행 573-810000-53104

MK(선교사 자녀) 후원: 하나은행 573-910004-23004

예금주: 동서문화개발교류회

동역자를 찾습니다



재능기부로 동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홍보, 소식지 | 기도지 발송,
행사도우미 기타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 가능

다양한 영역의 사역에 동역할 수 있습니다.

선교정보 및 지역연구
문서 홍보 업무
재정 및 행정
동원 및 훈련
MK 사역



두란노해외선교회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ACTS 비전빌리지 3층
Tel. 02-794-1063
E-mail. tim@tim.or.kr

두란노해외선교회 미주지부(TIM-America)

Jewish Community Center of Fort Lee,
1449 Anderson Avenue, Fort Lee, NJ 07024
Tel. 1-201-461-4010 (Sam Ahn)

두란노해외선교회 일본지부(TIM-Japan)

Hirata 3-17-3 Ichikawa city Chiba
prefecture, Japan
Tel. 81-47-378-0313